

상록탑

여자 탓하는 사회



박지연
사회·문화부 부장

책임추명(責引則明), 자기 잘못은 덮어 두고 남만 나무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SNS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기사가 있다. 작년 4월 보도된 <국민일보>의 '이별도 요령껏...일방통보 말고 시간 쥐어'라는 제목의 기사다. 경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여자가 남자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기사에는 이렇게 써있다. '실연이 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발 일방적 이별 통보 좀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안전한 이별 요령"을 설명했다.' 할말이 없어진다. 잘못된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필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취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성차별적 인식에서 시작된다. 여자들이 이별을 통보할 때 남자들이 갑작스런 통보에 놀라지 않게 행동을 하라는 의미의 발언을 두고 당시 언론은 문제 제기는 커녕 내용 그대로 보도한다. 이를 볼 때 사회는 여성에게 터무니없는 책임을 떠맡게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는 과연 나아지고 있을까? 오히려

“
결자해지(結者解之)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자

더욱 악화될 듯 하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생긴 여성혐오와 여성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 풍조를 볼 수 있듯 성차별적인 사회는 여전하다. 성차별적 문제의 책임을 여자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 남성의 성욕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옷차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11년 캐나다에서 여성들이 속옷 차림 등 노출이 과도한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입을 권리', '성범죄의 책임은 가해자' 등을 외치며 '슬릿 워크'라는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원인 제공은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은 다분히 남성중심적이고 폭력적이다. 비슷한 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일어난 '소개팅녀 알몸 촬영사건'에 대해 "소개팅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SNS에 올린 한 유명 의사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다. 그는 "사진 찍어 돌린 남자가 90% 잘못된 것이지만 여성도 10%의 잘못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자기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책임을 떠맡게 한다. 마치 여성에게 '신'의 역할을 강요하는 듯 하다. 이런 완벽 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여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그런데 정작 사회 속 여성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하다. 역할과 지위가 모순적이라면 더 이상 여성에게도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더 이상 여자를 탓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한다.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인지해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책임지는 결자해지의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 칼럼

동그라미가 되어버린 양심과 사유의 책임



유가환
사회·13

초등학생 때 도덕 교과서에서 '양심'에 대한 인디언의 구전 이야기에 대해 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면, 아이 시절 잘못을 할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세모인 양심'이 자꾸 모서리로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고 어른이 되면 그 곡 곡 찌르던 모서리가 다 닳아서 양심이 동그랗게 되어버려, 결국 잘못을 하고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양심은 계속 어 기다보면, 그 찌림조차 잊고 어느새 내 머리는 내가 비양심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다른 이유를 만들어 낸다. 합리화의 내용은 이렇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라는 것이다. 즉,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 이라고, 상황적 귀인을 하는 것이다. 상황에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언급했던 각자의 '직업'과 같은 상황이나, 복종해야 하는 '권력' 아래에 있는 상황 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은 '상황 속의 인간'이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은 거대한 '상황', 즉 사회 안에서 자신이 타고나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행위자에게 상황적 귀인을 쉽게 만든다. 나는, 그저 나치의 명령을 받

“
사유하는 태도가
만드는 양심사회

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 사회에서는 맞는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본인이 그 행동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저 아래에 묻어둔 채로. 물론 상황적 귀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은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감안해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일정한 행동에는 사회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 또한 수반된다. 어떤 개인의 행동이 100% 타의나 상황에 의한 행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다면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개인은 철저히 사회구조에 속하는 구성 원이면서도, 역시 그 사회구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즉,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사유하지 않고 그저 들리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행동이다. 물론, 잘못된 사회구조는 항상 개인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며 생각하지 말라고 종용한다. '생각 없이' 그저 편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어쭙잖은 양심' 같은 것은 잠시만 무시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과 비판의식 없이 기계처럼 살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책을 펴보면, 인간의 사유가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들이 존재한다. 식민 지배 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저항하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했던 독립운동.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중과 함께 공부하고, 고 민하고, 투쟁하여 이루어낸 민주화. 모두가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사유하지 않았던 나치 정권 하의 아이히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동참했다. 그가 나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가? 아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무사유'의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

여론광장

열심히 사는 삶과 낭만

독학재수를 거쳐 이대에 입학한 후, 1학년 생활은 카오스였다. 세상이 세워놓은 질서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만의 질서는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는지 파악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삶을 사는 방식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라는 1번 선택지만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웹툰인 '오늘의 낭만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사람을 '호모열심투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정말 공

감했다. 계속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현대인에게 낭만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낭만 없는 삶을 왜 대중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베일에 가린 법이다. 결혼을 원하는 처녀는 자기도 전혀 모르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청년은 명예가 무엇인지 결코 모른다. 우리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항상 철저한 미지의 그 무엇이다." 라고 했다. 나는 일상 위

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다. '모름'은 열심히 사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 막상 가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다. "열심히 인내하면서 살아 꿈을 이루면 행복해지지 않겠지?"같은 삶의 방식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만 높여 만족감이 떨어지고 실망만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로 살면 그 꿈을 이룬 후의 삶의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미화된 환상을 가지고 현실에 인내하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사는 삶의 방식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낭만 있는, 열심히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오늘 생각해본다 김경민(철학·14)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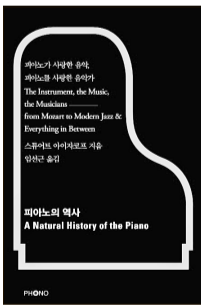
'올바른' 역사책, 오늘도 가감 없이 기록해야

속전속결(速戰速決)이다. 10월12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일, 2017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됐다. 황교안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발행제도를 국정화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일부 집필진을 공개하며 집필진 공모를 시작했고 20일까지 국정 교과서 집필진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정부가 행하는 속전속결과는 다른 의미로 빠르고, 또 강하다. 국정 교과서 확정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분노 학생들도 함께 행동했다.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목소리를 내버렸다. 총학생회(총학)와 본교생들은 광화문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헬렌 앞에서 국정화 반대 의미를 담은 검은색 옷을 입고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화·포스코관, 학생문화관 등 교내 곳곳에도 국정화 반대 대자보, 포스터가 여럿 붙었다. 본교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체를 통해 여론을 공론화했다. 본교생 약 800명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1617만8657원

을 모아 <경향신문> 21853호(2015년 11월4일자)와 21855호(2015년 11월6일자)에 국정화 교과서 반대 및 시국선언 광고를 게재했다. 본교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해당 신문광고는 <경향신문> 21853호 1면과 21855호 전면광고에 게재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국민들의 위 같은 외침은 무시됐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론의 적극적인 분출만 있을 뿐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정책 집행 과정에 끊임없이 투입돼 이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여론은 더 이상 갈 길을 잃었다. 투입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여론 반영 없는 정책 집행에는 비판이 끊임 수 없다. 그 비판은 '올바른' 역사책에 고스란히 기록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즉, 누구의 말마따나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2015년 오늘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알려야 한다. 고쳐진 역사가 우리의 기억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현재의 목격자로서 미래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경향신문> 21853호 1면 광고 문구 중)



금주의 책



피아노의 역사 스투어트 아이자코프 지음, 서윤·포노, 2015.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악기인 피아노의 300년 역사를 소개한 책입니다.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바흐부터 현대 음악가들까지 피아노 음악에 관한 광범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7세기 피렌체에서 피아노가 탄생한 이후 발전하는 모습을 거장들의 피아노 작품, 뛰어난 연주자들의 피아노 음악과 함께 풀어냅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인간사에 피아노가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피아노가 단순한 악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피아노가 가진 매력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입기도서 / 음악도서관 단행본서가 786.209 IsIn한

0819-0917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신과 함께 : 저승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1
2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3	진화와 윤리	Huxley, Thomas Henry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4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Ury, Lisa A, Campbell, Neil A., 전상학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4
5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사츄수	문학동네	2009-2010
6	로마인 이야기	염아칠생	한길사 : 한길사	1995-2007
7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재판	Foucault, Michel	나남	2003
8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9	거시경제학	Mankiw, N. Gregory	시그마프레스	2014
10	모래 사나이 : E. T. A. 호프만 단편선	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문학과지성사	2001
11	메이즈 러너	Dashner, James	문학수첩	2012
12	버림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13	그레이의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